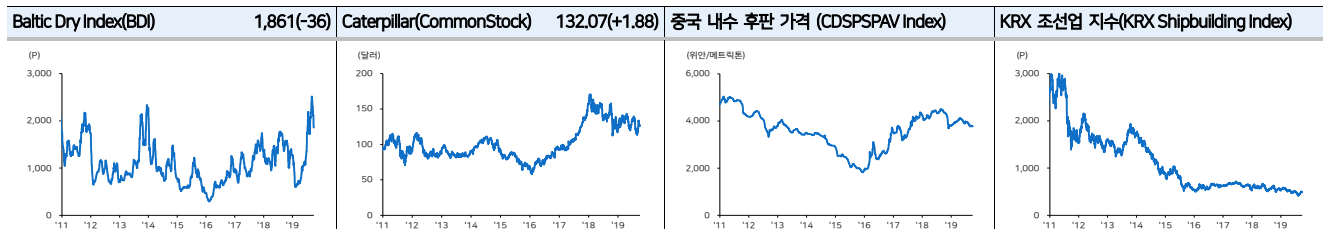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	19E	18	19E	18	19E
한국조선해양	8,705.1	16.8	123,000	-2.4	-0.8	11.8	-4.3	85.7	41.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749.2	20.0	353,000	-0.3	-0.4	7.3	2.0	4.8	4.0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16.8	6.1	10,650	-0.5	-7.4	-33.2	-52.0	1.0	0.9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622.5	11.6	31,600	-1.7	0.5	-13.1	-26.0	2.0	1.5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4,989.6	19.9	7,920	-1.9	-3.9	4.3	6.9	50.0	24.8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205.5	12.8	29,900	-1.3	-1.5	-2.8	-12.4	10.5	7.5	0.9	0.7	9.0	9.9
현대미포조선	1,769.4	14.4	44,300	-1.2	-2.4	-3.9	-26.2	9.6	6.9	0.3	0.3	3.6	4.8
한진중공업	370.6	20.9	4,450	-0.7	-8.2	-19.8	-46.2	89.5	22.3	0.6	0.6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78.7	22.0	80,100	-2.0	-12.2	-5.5	-25.1	14.1	13.8	1.9	1.7	14.6	13.3
두산밥캣	3,313.2	26.5	33,050	1.8	-7.8	-8.3	6.7	12.1	11.4	0.9	0.9	7.4	7.6
현대로템	1,564.0	4.5	18,400	-1.9	-9.1	-1.3	-33.9	23.7	16.2	1.1	1.0	4.5	6.3
하이록코리아	245.0	46.8	18,000	-1.9	-2.4	0.6	9.4	8.1	7.5	0.7	0.6	8.8	9.0
성광벤드	300.3	20.3	10,500	-1.9	-5.0	8.0	-7.9	928.2	37.6	0.7	0.7	0.1	1.8
태광	279.6	12.8	10,550	-1.9	-5.4	11.2	-9.8	63.0	30.8	0.7	0.6	1.0	2.1
두산중공업	1,316.0	11.3	6,510	-1.4	-3.8	7.4	-22.5	-19.6	22.1	0.3	0.4	-0.1	1.4
두산인프라코어	1,288.5	16.7	6,190	0.3	-3.3	1.5	-18.4	4.2	4.4	0.7	0.6	17.7	14.2
HSD엔진	117.8	3.5	3,575	5.5	0.7	5.1	-32.3	-9.4	-4.9	0.5	0.6	-4.7	-8.1
한국항공우주산업	3,782.0	21.6	38,800	-0.1	-5.9	10.9	21.6	56.6	17.7	3.4	3.1	6.1	19.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55.2	22.9	41,800	1.2	0.5	27.1	28.6	173.2	22.4	0.9	0.9	0.6	4.1
LIG넥스원	766.7	5.9	34,850	-1.8	1.6	20.4	-5.7	80.2	N/A	1.6	N/A	2.4	2.4
태웅	197.7	4.6	9,880	-0.3	-5.5	0.0	-5.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82.0	7.7	10,450	0.0	5.4	24.4	35.4	-22.0	14.6	3.8	3.0	-16.2	23.2
한국카본	386.4	13.0	8,790	0.3	4.5	13.9	24.9	136.9	28.8	1.3	1.2	0.9	4.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valend takes VLCC newbuild tally to four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1척 수주한 30만DWT급 VLCC 건조 계약의 발주처가 Evalend Shipping이라고 보도됨. 옵션분이 추가로 있으며 옵션 만기는 내년 초까지라고 알려짐. 해당 선가는 9,400만~9,500만달러로 알려졌으며, Evalend에 수주한 4척의 VLCC 중 첫번째 선박은 2020년 초, 나머지 세척의 인도는 2021년 예정으로 보도됨. (TradeWinds)

LNG선도 유조선 달아

상당수 용선주들이 LNG 수송 물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즉시 투입가능한 LNG선 선박을 구하고 있으며 운임이 상승 중이라고 보도됨. 그러나 이번 운임 상승 배경은 중국항 화물이 쏟아졌던 종전과 달리, 아시아 유럽 지역의 구매 수요는 감소했으나 미국 LNG 생산량이 증가하며 저장용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글로벌 선박 금융 대폭 감소

전 세계 상위 40대 선박 금융 은행들의 선박 금융 대출금액이 12년 전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고 보도됨. 지난해 전체 금융 지원금 규모는 3,210억달러였으며, 서방 은행들의 지원 자금이 대폭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됨. 유럽 은행의 대출 감소분을 상쇄해오던 극동 지역의 금융기관의 대출 또한 감소세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antos determined to expand Darwin LNG

호주 Santos사는 Darwin LNG의 생산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1개 Train의 설비로 되어있으나 Santos가 ConocoPhillips의 LNG 프로젝트 운영권에 대한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호주 Baross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Upstream)

'노조, 기업결합 협조'...대우조선 CEO의 호소

사내 소식지를 통해, "최근 초대형 LNG선 입찰 프로젝트에서 선주가 '항후 노조가 기업결합 이슈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공정이나 납기가 지켜지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결국 우리는 수주하지 못했다'라고 밝힘.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연말 승인 완료로 목표로 기업결합 심사를 추진 중으로 알려짐. (매일경제)

한국조선해양, 의료용 로봇부문 매각 2년 만에 현금화

한국조선해양이 보유 중이던 큐렉소 주식 196만7387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2017년 의료용 로봇사업부문을 큐렉소에 매각하면서 현금 출자방식으로 신주를 받았음. 큐렉소 유상증자 참여로 약속했던 2년간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큐렉소 지분 매각으로 124억5000만원을 확보함. (아시아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편면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

